

“선도경제 중심에 벤처… 세계 4대 벤처강국 도약”

문 대통령, K+벤처 모두발언서 “정부 힘껏 뒷받침”

“정부 힘껏 뒷받침… 창업·성장·재도전 촘촘 지원
초기 창업기업 투자 확대… 1조 전용펀드 신규 조성”

문재인 대통령은 26일 “4차 산업혁명과 포스트 코로나 시대를 주도하며, ‘추격형 경제’에서 ‘선도형 경제’로 나아가고 있다”며 “그 중심에 벤처기업인들이 있다”고 말했다.

문 대통령은 이날 청와대에서 열린 창업·벤처인 초청 행사 K+벤처(K+어드벤처) 모두 발언에서 “대한민국은 이제 추격의 시대를 넘어 추월의 시대를 맞고 있다”며 이렇게 말했다.

이날 행사는 제2벤처붐 확산 노력을 이어가고 있는 기업인을 격려하고, 글로벌 벤처강국으로의 도약 의지를 강조하기 위해 마련했다. 벤처투자자, 유니콘 기업 관계자, 창업·벤처인들이 참석했고 예비 창업자 등 70여명이 온라인으로 실시간 참여했다.

문 대통령은 “20년 전 1세대 벤처기업인들이 IT 강국으로 가는 디딤돌을 놓았고 이제는 2세대 후배들이 우리 경제의 새로운 도전을 이끌고 있다”며 “오늘 그 주역들, 선후배 벤처기업인과 예비창업자, 벤처투자자들이 함께 모였다”고 언급했다.

이어 “우리는 성공과 실패의 경험을 공유하며, 더 높이 비상할 것”이라며 “청의적인 아이디어와 도전 정신으로 미래를 열고 있는 벤처기업인 여러분께 깊은 감사의 인사를 드린다. 지금까지의 성과를 돌아보고 새롭게 도약하는 지리가 되길 바란다”고 했다.

문 대통령은 “제1벤처붐과 다른 ‘준비된 벤처붐’으로 우리 벤처기업들은 더 높이 도약했다”며 “2017년 3개에



불과했던 유니콘 기업이 15개로 늘었다. 예비 유니콘 기업도 357개에 달한다”고 제2벤처붐의 성과를 소개했다.

이어 “주식 시장에서도, 세계 시장에서도 우리 벤처기업들이 힘차게 약진하고 있다. 코스피 시가총액 상위 20위권 내에 벤처 출신 기업이 4개나 진입했고, 코스닥 시가총액 상위 20위권 내에는 벤처기업이 13개에 달한다”고 덧붙였다.

문재인정부 출범 이후 중소벤처기업부를 신설하고 규제샌드박스 제도 혁신, 정책금융 연대보증 폐지, 모태펀드

대규모 자금 출자 등의 노력을 통해 제2벤처붐을 뒷받침했다는 게 문 대통령 설명이다.

문 대통령은 “앞으로도 정부가 힘껏 뒷받침하겠다”며 “창업부터 성장, 회수와 재도전까지 촘촘히 지원해 세계 4대 벤처강국으로 확실하게 도약하겠다”고 밝혔다.

문 대통령은 “혁신적인 기술창업을 더욱 활성화하겠다. 유망 신산업 분야에 창업지원 예산을 집중하고 지역별 창업클러스터도 신속히 구축하겠다”며 “연간 23만 개 수준의 기술창업을 2024년까지 30만 개로 늘릴 것”이라고 말했다.

그러면서 “인재와 자금 유입을 촉진해 벤처기업의 빠른 성장을 뒷받침하겠다. 우수한 인재 유치를 위해 스톡옵션의 세무 부담을 대폭 낮춰, 실질적인 인센티브가 되도록 하겠다”고 강조했다.

문 대통령은 또 “벤처투자에 대한 지원도 더욱 늘릴 것이다. 위험부담이 큰 초기 창업기업 투자 확대를 위해 1조 원 규모의 전용 펀드를 신규로 조

성하겠다”며 “민관 합작 벤처 펀드의 경우 손실은 정부가 우선 부담하고 이익은 민간에 우선 배분해 더 많은 시종 자금이 벤처기업으로 흘러들게 할 것”이라고 밝혔다.

그러면서 “경영권 부담 없이 대규모 투자를 받을 수 있는 여건도 조성하겠다”며 “비상장 벤처기업의 복수 의결권 주식 발행 허용 법안이 조속히 통과될 수 있도록 국회에 협조를 구하겠다”고 했다.

아울러 “투자 자금의 원활한 회수와 재투자를 위해 M&A 시장을 활성화하겠다”며 “중소·중견기업의 벤처기업 인수를 지원하는 기술혁신 M&A 보증 프로그램을 신설하겠다”고 말했다.

문 대통령은 “벤처는 그 자체로 혁신이며 도전이다. 벤처 창업이 빠르게 늘어나고 성장할 때 수많은 아이디어와 가능성이 우리 앞에 현실이 돼 있을 것”이라며 “우리 경제의 현재이자 미래인 벤처기업인들의 꿈과 도전을 응원한다. 함께 선도경제로 나아가자”고 주문했다.

“외국인 단기 노동자 백신 우선 접종하자”

송지용 도의회 의장, 외국인 코로나19 확진자 증가 따라



전북도의회 송지용 의장(완주 1)은 최근 도내 외국인 코로나19 확진자가 증가함에 따라, 외국인 단기 노동자 및 미등록 체류자를 대상으로 안전 백신 우선 접종을 추진하자고 제안했다.

26일 도에 따르면 8월 들어 현재까지 도내 코로나19 확진자 600명 가운데, 외국인 노동자는 82명이다.

또한 전주시는 최근 일주일간 하루 평균 20여 명의 확진자가 나오면서 27일부터 사회적 거리두기를 4단계로 격상했다. 이처럼 코로나19 4차 유행에 따라 도내 외국인 확진자도 늘고 있으나, 외국인 노동자들의 경우 백신 접종 신청이 저조하고, 미등록 체류자들은 신분 노출로 인한 단속 가능성을 우려해 코로나19 진단검사조차 꺼리는 실정이다.

이런 가운데 송 의장은 전북도가 접종 사각지대에 놓인 외국인 노동자들을 대상으로 백신 접종 참여 독려와 미등록 체류자에게 불이익 없이 예방 접종이 가능하다는 홍보를 하고, 1회 접종으로 완료되는 안전 백신을 접종하고 증명서를 발급해 주라고 제언했다.



국내 도착한 아프간인 탑승 수송기. 아프간 현지인 조력자 및 가족들이 탑승한 공군 다목적 공중급유수송기 KC-390이 26일 오후 인천국제공항 제1여객터미널에 도착하고 있다.

“진안의료원 도립화, 반드시”

지역 의료 격차 감소 위해… 전북시군의정장들, 전북도 등에 촉구

전북시군의회의장협의회(회장 강동화 전주시의회 의장)가 26일 진안의료원의 도립화에 전북도가 적극 나설 것을 촉구했다. 의료원의 경영상 어려움을 해소하고, 진안·무주·장수지역의 의료 격차를 줄이자는 차원에서다.

협의회는 또 ‘지방의료원의 설립 및 지원에 관한 법률 개정안’에 대한 신속한 처리도 호소했다. 지방의료원 특성상 예산지원 없이 효율적인 운영이 어렵다고 판단해서다. 해당 법률 개정안은 성장추진지역에 있는 지방의료

원에 대한 국비지원 근거가 담겨있다. 협의회는 이날 진안홍삼연구소에서 제206차 월례회를 열고 “공공의료 강화를 위한 진안의료원 도립화 및 지방의료원의 설립 및 지원에 관한 법률 개정 촉구 건의안”을 채택했다.

시·군의회 의장들은 “진안의료원은 공공성을 중시하는 공공병원 특성과 지역 여건으로 인해 매년 30억원 이상 적자가 계속된다. 지난해는 44억원까지 손실이 발생하면서 경영상의 어려움을 겪고 있다”면서 진안의료원의 실태

를 설명했다.

또 “진안·무주·장수 지역은 상급·일반 종합병원이 없고, 병원급은 진안의료원이 유일하다”면서 “전국 35개 지방의료원 중 유일하게 지자체 재원으로 운영하고 있는 진안의료원의 현실을 전북도는 외면하지 말고 도립화에 적극 나서야 할 것”이라고 강조했다.

강동화 회장은 “균형적인 공공 의료 체계 확충을 통해 지역 간 의료 불균형을 해소하고, 궁극적으로 의료취약 지역 주민의 건강권을 보장해 국가적 재원에 효과적으로 대응해야 할 것”이라고 말했다.

협의회는 이날 채택한 건의문을 국화와 전북도 등에 보낼 예정이다. /김윤상기자·진안=우태만기자

주민 중심 지방자치 실현 역량강화

전국 지방의원 77명
의원 연수과정 참여



행정안전부 지방자치인재개발원(원장 김정희)은 전국 지방의원 의원 77명이 참여하는 2021년 지방의원 연수과정(지방의정 아카데미)을 26일 온라인 비대면으로 개최했다.

지방의원 연수과정(지방의정 아카데미)은 지난 1998년부터 매년 진행됐으나, 지난해에는 코로나19 확산으로 개최하지 못해 올해로 23 회째를 맞이했다.

연수과정은 의정 수행에 필요한 전문 지식습득 및 의원 간 협력과 소통을 통해 지방의원의 성공적 의정활동을 지원하는 지방자치인재개발원의 대표적 교육 과정이다.

올해는 지방의회 개원 30주년을 맞이한 해로, 지방의원들의 연수에 대한 관심과 지원, 지방자치 발전을 위한 열정에 힘입어 온라인 연수를 진행하게 됐다.

이번 아카데미는 연수 프로그램을 지방자치법 개정 이후 지방의회의 자율성과 독립성 강화 등에 중점을 두고 진행되는 것이 특징이다. 이를 통해 지방의회의 역할 및 기능 강화, 공직선거법 등 지방의

원의 역량 강화에 실질적인 도움이 될 수 있을 것으로 기대한다.

이날 연수는 전혜철 행정안전부 장관의 환영사를 시작으로 오전에는 김순은 자치분권위원장의 ‘자치분권 2.0시대 지방의회 발전방향’을 주제로 한 기조강연 순으로 진행됐다. 오후에는 홍준현 중앙대 공공인재학부 교수의 ‘지방의회의 역할과 발전과제’ 특강에 이어 국민권익위원회, 중앙선거관리위원회와의 협업을 바탕으로 ‘반부패·청렴’ 특강 및 ‘공직선거법’ 특강이 진행됐다.

전혜철 행정안전부 장관은 영상 환영사에서 “코로나19 확산 방지와 지역경제 활성화를 위해 최선을 다해주고 계신 의원님들께 감사하다”면서 “코로나19 조기 극복과 본격화 된 자치분권 2.0 시대의 성공적 도약을 위해 지방의회가 자율성과 책임성을 바탕으로 주민 중심의 생활 자치를 실현해주시길 것을 당부드린다”고 밝혔다. /김윤상 기자

민중 도당, 수술실 CCTV 설치 의무화 법안 상임위 통과 환영

더불어민주당 전북도당(위원장 김성주)은 26일 대변인단 논평을 통해 더불어민주당 의원들의 대표 발의로 수술실 CCTV 설치 의무화 법률안이 7년 만에 국회 보건복지위원회 상임위 통과를 환영했다.

이날 전북도당은 ‘한국환자단체연합회’가 유령수술, 무자격자 대리 수술, 성범죄 의료사고, 은폐 등을 예방하기 위해 시작된 수술실 CCTV 관련 의료법 개정 운동이 7년 만에 열매를 맺었다고 언급했다. 또 국민권익위원회는 ‘수술실 CCTV 설치’와 관련한 설문조사에서 응답자의 97.8%가 이 법안에 찬성했다고 밝혔다.

전북도당은 “국민의 대다수가 환영하고 있는 법안 통과를 위해 의료계에서는 헌법소원의 법률 검토를 중단하고, 법안 통과를 위해 협력해야 할 것이다”고 거듭 강조했다. /유호상 기자



심진강 르네상스 시대를 열어갑니다

IMSIL-GUN
임실군